

위해성 소통 통해 대중매체 과대·왜곡보도 막아야



안종주_ 대한보건협회 기획홍보이사·보건학 박사

인 간에게 선과 악의 양면이 있듯이 거의 모든 물질에도 위해와 편익의 양면이 있다. 약은 잘 쓰면 생명을 살리고 건강을 회복시키지만 오용하거나 과용하면 숨지거나 약해를 입게 된다. 살충제와 살균제, 제초제 등과 같은 농약도 잘만 사용하면 작물의 병충해를 막아주지만 오용하거나 과다사용하게 되면 토양을 오염시키고 농작물에 남아 인체에 해를 끼치게 된다.

우리가 농약을 사용하는 것은 농약이 인간에게 편익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약은 일반 공중에게 독극물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다. 이는 주로 과거 고독성 농약을 아무 개념 없이 마구잡이로 뿌리다 중독되는 사고, 농약음독자살 사건, 농약인줄 모르고 음료수나 막걸리 정도로 여기고 마시다 생긴 사고 등 때문에 비롯했다.

거의 대부분의 농약은 독성을 지니고 있다. 지금도 고독성 농약이 드물게 있지만 현재 과수 재배나 농작물 재배에 사용하는 농약의 대부분은 저독성이거나 보통독성을 띠고 있다. 또 지속성이 강한 유기염소계나 발암성이 있거나 발암이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농약은 대부분 퇴출됐다. 따라서 요즘 작물에 농약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소비되는 농작물이나 인체에 문제가 될 만큼 남아있을 위험성은 매우 낮다.

그런데도 공중은 물론이고 환경보건 분야를 맡고 있는 공무원과 연구원, 언론인,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대체적으로 농약의 위험성을 높게 보고 있다. 몇 년 전 조사결과이지만 필자가 환경보건 분야에서 일하는 여론주도집단(국가연구기관, 공무원, 환경운동단체와 소비자단체, 언론인)의 21개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식품잔류농약이 환경호르몬, 다이옥신, 중금속, 흡연에 이어 5번째로 위험한

물질로 느끼고 있었다. 일반인들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식품 중 잔류농약의 위해성에 대해서는 여론주도층보다 더 심각하게 느낄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여론주도층을 비롯한 공중이 잔류농약에 대해서 이렇게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인지하는 까닭에 대한 심층연구는 없지만 여기에는 언론보도가 한몫을 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이와 함께 소득증가와 함께 참살이(웰빙)와 건강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무농약 또는 저농약 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최근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들 농산물에 대한 시장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친환경농산물을 직거래하는 생활협동조합의 수와 그 회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그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올바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리스크 커뮤니케이터, 즉 위해소통가나 위해소통 기관이 위해성 분석 때 공중을 파트너로 참여시켜야 하며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또 공중의 위해성 인식에 대해 이들이 무지하다는 등의 배타적 시각을 갖지 말고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요인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농약의 위험성을 전 세계인에게 각인시킨 이는 「침묵의 봄」 저자로 유명한 레이철 카슨이며 잔류성이 강한 DDT가 그가 지목한 '주범'이었다. 그의 책은 농약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암 발생의 상당부분은 농약을 대표주자로 하는 화학물질 때문이라고 믿게 만들었다. 심지어는 인공물질은 나쁘며 천연물질은 좋은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카슨과 「침묵의 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농약의 위해성에 대해 과장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화학물질에 대한 오해를 확산시켰다는 이유에서다. 「회의적 환경주의자」의 저자인 비외른 롬보르 교수는 세계적인 미생물학자이며 암 연구자인 브루스 에임즈 교수의 말을 빌려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인간은 잉태 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위험한 화학물질들과 접촉하게 되었다는 카슨의 말에는 근본적인 오류가 있으며 진실은 사람들이 노출되는 화학물질의 대다수가 자연계에서 발생하며 어떤 화학물질이든 그 양이 많아지면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에임즈 교수는 또 “양배추에는 49종의 천연살충제가 들어 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이 발암물질이다. 커피 한 잔에는 당신이 1년 동안 접하는 식품의 잔류 살충제보다 훨씬 많은 화학적 발암물질이 들어 있다”는 말도 했다. 물론 이를 가지고 커피가 매우 위험하다고 하면 안 된다. 커피에 들어있는 화학적 발암물질의 양은 아주 적어서 병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99.99% 천연 농약 화학농약 겨우 0.01%

롭보르는 “식물은 자체 병충해 방지를 위해 천연농약 성분을 만들어내 지니고 있으며 이 때문에 사람은 화학농약보다 천연농약을 훨씬 더 많이 섭취하고 있다. 무게로 따지면 우리가 섭취하는 농약의 99.99%가 천연농약이고 화학농약은 겨우 0.01%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들 학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그 성분이 천연이나 인공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성분이 얼마나 독성을 지니고 있는냐와 그 양이 위해성의 관건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들은 농약은 꼭 필요한 때, 필요한 양만큼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카슨과 카슨의 후예들은 1960년대부터 농약과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환경운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미국에서 1989년 터져 나온 사과 알라(Alar, 다미노자이드 성분의 농약 상품명) 사건도 그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다. CBS방송은 인기시사 프로그램인 「60 minutes」에서 사과 재배에 사용되는 알라는 ‘가장 위험한 화학잔류물’이며 발암의심물질로 지목했다. 소비자들의 항의와 우려가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미국인들은 아예 사과를 먹지 않았다. 알라 농약 사용은 중단됐다.

같은 해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수입자몽에 위험한 알라가 검출됐다는 한 소비자단체의 발표를 계기로 자몽은 팔리지 않고 모두 폐기처분 되다시피 했다. 미국은 분석결과와 그 평가가 비과학적이며 이는 무역보복의 성격이 강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한국이 수출하는 배에 대해 무역보복 조치를 했다. 한국 배 재배 농가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다.

대중매체는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고 위험을 과장보도 하는 경향이 짙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신문이든, 방송이든 독자와 시청자의 눈과 귀를 잡아두려는 의도로 매우 자극적이고 공포를 자극하는, 과장된 용어나 표현을 즐겨 쓴다.

아직 우리나라 사람의 60% 이상이 기억하고 있는 1989년의 우지라면사건 때에도 매스미디어는 ‘공업용우지’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했다. 2004년 불량만두소 사건 때에도 ‘쓰레기 만두’라는 혐오스런 표현을 사용했다. 농약과 관련해서 언론이 즐겨 쓰는 표현은 ‘투성이’와 ‘범벅’일 것이다. 예를 들어 껏이에

서 기준치 이상의 클로르피리포스라는 농약성분이 검출됐다고 보도자료를 내면 언론은 ‘깻잎에서 농약성분 범벅’ 또는 ‘농약 투성이 깻잎 시중 유통’ 따위의 제목으로 다룬다. 이런 보도를 접한 소비자들은 얼마간 깻잎을 사지 않거나 무농약 유기농 인증을 받은 깻잎을 사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야채에는 농약이 많이 들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은연중 하게끔 만들 가능성이 높다.

농약의 독성 정확하게 이해시켜야

실제 농작물 잔류 농약으로 인한 인체 위해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 위해성분석센터가 환경 관련 위험 19개를 포함해 모두 48개의 위험을 노출가능성과 위해성 결과 등으로 위해성 분석(Risk Meter)을 한 결과 살충제의 경우 두 항목 모두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상황을 바탕으로 한 결과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공중과 전문가 사이에 위해성 인식 및 분석이 다른 것은 그 사회에서 불필요한 갈등이나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해결의 열쇠는 바로 위해성 소통, 즉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다. 위해성 소통은 공중과 전문가 간의 위해성 인식 격차를 줄여주고 위해성을 올바르게 인식토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올바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리스크 커뮤니케이터, 즉 위해소통가나 위해소통 기관이 위해성 분석 때 공중을 파트너로 참여시켜야 하며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또 위해소통 기관이나 단체, 정부는 공중의 위해성 인식에 대해 이들이 무지하다는 등의 배타적 시각을 갖지 말고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요인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위해소통과 관련한 대중매체의 속성과 특성을 잘 파악해 위해성이 필요 이상으로 과대 또는 왜곡보도되는 것을 막아 위해성이 증폭되거나 공중이 분노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공중은 한번 분노가 폭발하면 아무리 합리적이고 올바른 이야기를 해도 귀담아 듣지 않는다. 이밖에 요즘 사용되고 있는 농약의 독성에 대해 언론인과 공중에게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한편 최근 농약 위해성 보도는 주로 잔류농약이 채소류에서 기준치 이상 검출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농약을 과다 살포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사용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